

파워 슈트 스타일에 관한 연구

김정미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A Study on the Power Suit Style

Kim Jeong-Mee

Major in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aesthetic values of the Power suit in 1980s and the images of the Power suit styles shown in 08/09 F/W, 09 S/S, 09/10 F/W and 10 S/S colle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esthetic values of the Power suit in 1980s are authority, sexuality and luxury to express the power, body and wealth. Authority is represented in wide and hard shoulders with pads and dark colors with stripe and no patterns. Sexuality is represented in tight waist jacket and tight skirt. Luxury is represented in luxurious fabrics and handicraft ornaments. 2) The Power suit styles shown in collections are expressed in classic, romantic, avant-garde and ethnic images: Classic images appeared in jacket which exaggerated shoulders with pads, mini skirt, tapered pants, dark colors with stripe and check patterns, rough materials and a waist belt. Romantic images are represented in the skirt with an asymmetric hem, pastel and splendid colors, lace and silk, romantic details made with gathers and flounces and fantastic accessories. Avant-garde images appeared in the deformed jacket, unperfected skirt, special materials and exaggerated accessories. Ethnic images are represented in big silhouette forms with wide shoulders jacket and wide pants, ethnic patterns, gold, orange and other vivid colors and ethnic accessories.

Key words: avant-garde, classic, ethnic, power suit style, romantic

1. 서 론

요즘 컬렉션에서는 지난 시대 유행했던 특정한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패션이 종종 등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실루엣의 특징이 뚜렷한 여성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여성복 컬렉션들을 살펴본 바, 줄리안 맥도널드(Julien Macdonald), 구찌(Gucci), 비블로스(Byblos),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지안 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e), 지오르조 아르마니(Giorgio Armani), 크리자(Krizia), 지방시(Givenchy), 발망(Pierre Balmain), 샤넬(Chanel), 루이 뷔통(Louis Vuitton),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 도나 카란(Donna Karen),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마이클 코어스(Micheal Kors), 랄프 로렌(Ralph Lauren) 등 많은 디자이너들은 어깨를 위로 솟게 하거나 아래로 처지게 하든지 혹은 넓히거나 부풀린 재킷에 스커트나 팬츠 등을 매치한 슈트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스타일의 등장배경으로 패션전문가들

은 1980년대 패션의 복고현상, 즉 그 시대 유행했던 파워 슈트(power suit)를 지목하였다(김지혜, 2009; 김현진, 2009; 맹창현, 2009; 백소영, 2009; 하주희, 2009). 파워 슈트 스타일처럼 어깨를 강조한 복식은 어깨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체형이 길고 날씬하게 보이는 시각효과를 주어(이은영, 2003)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크게 유행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파워 슈트와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르주아 여피의 패션 스타일(최호정, 하지수, 2005; 한귀자, 2002), 권력과 권위 이미지를 표현하는 패션 스타일(김은희, 2002)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패션은 과거의 복식 스타일을 차용하나 그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의미를 상실한 기표들의 조합 즉, 새로운 이미지로 창조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파워 슈트를 어떤 특정 권력계층의 패션스타일과 이미지로만 규정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최근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하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파워 슈트 스타일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1980년대 파워 슈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최근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파워 슈트 스타일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과거의 복식 스타일이 변화되어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현대패션의 경향을 이해한다는 점과 파워 슈트를 참고한 디자이너들의 독

Corresponding author; Kim Jeong-Mee
Tel. +82-51-629-5367, Fax. +82-51-629-5354
E-mail: jmkim@pknu.ac.kr

특한 방식을 통해 새로운 패션디자인을 위한 창조적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파워 슈트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과 파워 슈트의 조형적 특성 및 미적가치를 파악한다. 둘째, 최근의 주요 컬렉션에서 나타난 파워 슈트 스타일의 이미지와 조형적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진행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 연구는 복식미학과 복식사에 관한 저서, 논문, 신문 및 패션 전문지 기사를 참고한다. 다음으로 사례 연구는 패션 전문지 엘레코리아(ELLEKOREA),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와 패션사이트 인터패션플래닝(interfashionplanning)의 최근 3년 동안 즉, 08/09 F/W, 09 S/S, 09/10 F/W, 10 S/S의 런던(London), 파리(Paris), 밀란(Milan), 뉴욕(New York) 컬렉션에서 '파워 숄더(power shoulder)', '파워 슈트', '80년대 스타일', '80년대 패션'의 용어가 언급된 여성복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1980년대 파워 슈트

2.1. 파워 슈트의 출현 배경

2.1.1. 여성의 몸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

1980년대 들어서면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존재는 거의 평범한 것이 되었으며, 여성들은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회사들은 불필요한 성차별 소송을 피하려고 노력하였고, 성교육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새로운 지도자들의 특징이 여성적 기호로 코드화 되면서 젠더에 따른 이분법적 이미지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페미니즘은 기존의 억압된 성성으로 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여성의 인체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게 되었고,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함연자, 2003).

당시의 페미니스트들은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고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여성들이 자신과 다른 여성을 보도록 부추기는 현상에 대해 남성의 기준에 의한 여성다움이 지배적인 여성다움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배적인 여성다움으로 간주되는 대중매체 이미지를 보는 젊은 여성들은 그러한 이미지가 수동성보다는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이 변하고 있었다(Crane, 2004).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성장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인위적인 신체의 과장과 축소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고, 신체적 활동성과 부에 대한 관심, 육체에 대한 숭배, 헬스나 미용을 통한 자기 관리 등을 통해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출하였다. 특히 건강과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에어로빅과 조깅은 인기있는 운동이 되었다. 실베스타인(Silberstein)은 80년대 여성의 몸에서 많은 근육과 건강함이 나타난다고 했으며, 「타임(Time)」지도 '이상적 미의 새로운 기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날씬하면서 건강한 근육질을 소유한

제인 폰다(Jane Fonda)와 같은 여성이 현대의 새로운 미의 기준이라고 평가했다(최호정, 하지수, 2005).

당시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근육질 체형을 이상적이며 섹시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여성의 몸매에 대한 이상미는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 수동성, 종속성을 거부하고 능동적이고 자아의지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여성상을 그려냈으며, 이는 과거 종속적인 여성성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미와 여성의 몸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자기 확신에 찬 여성들은 몸매를 강조하면서 과감하게 변해갔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더 이상 여성적인 곡선을 감출 필요가 없었으며, 이러한 곡선은 에로틱하기 보다는 생동감과 건강미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큰 키, 근육질, 더 넓어진 어깨, 큰 가슴, 허리선 강조, 작고 올라간 힙, 긴 다리로 이상적인 신체이미지가 구체화되었다(김지연, 2002).

2.1.2. 여피(Yuppie) 계층의 대두

1980년대 초반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는데, 이러한 그의 정책은 집권 초에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국민들은 경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1983~84년에는 여피들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여피란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지의 칼럼니스트인 밥 그린(Bob Greene)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young urban professionals'의 준말이다(Crane, 2004). 여피들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며 연봉 4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여피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유로 여피(Euro Yuppie)라 하여, 보수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젊은이들로서, 뉴 리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한귀자, 2002).

여피들은 20대와 30대에 속하긴 했지만, 나이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회적 지위에 의해 정의되어 계층 간에 동질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자신의 일에 열성적이며 보다 나은 생활과 지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또한 여피들은 자신들의 외모가 성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외모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이나 직장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기대감을 의식하면서 자신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외모 가꾸기에 벌어들인 소득을 과감히 투자했다. 특히 여성 여피들은 사회적 지위향상과 경제적 성장을 통해 자아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였으며, 직업적 성공을 상품으로 상징화시키려는 경향으로 패션에서 고가의 브랜드를 선호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늘 염두에 둔 패션 키워드는 럭셔리(luxury)와 클래식(classic) 그리고 트렌드(trend)였다(한귀자, 2002).

「뉴스 위크(News Week)」의 1984년 9월 「여피의 해(year of the Yuppie)」라는 기사(최호정, 하지수에서 재인용, 2005)에 의하면 도시의 젊은 전문 직업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차림

새는 레이건의 치세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보도했으며,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말을 빌려 “여피는 중류층 부르주아이며 이들의 문화적인 가치관이나 실천의식은 1980년대 미국사회에 필요한 아주 이상적이고 문화적인 패러다임에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2.2. 파워 슈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

2.2.1. 권위성

1977년 몰리(Molloy, 1980)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인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남성적인 비즈니스 슈트를 착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남성의 슈트 재킷과 유사한 재킷에 여성성을 유지하는 스커트 슈트로서(Callan, 1998), 전형적인 남성성의 기표인 넓고 딱딱한 어깨, 어두운 색상, 무늬가 없거나 줄무늬, 실크와 울 소재가 사용되었다. 이 슈트는 1979년 영국의 수상으로 임명된 마가렛 테처(Margaret Thatcher) <Fig. 1>에 의해 구체화 되었고(Mulvey, Richards, 1998), 1980년대 초반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서 널리 확산되었다(김은희, 2002).

당시 여성들이 남성의 스타일을 차용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시사했다. 슈트는 원래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출현한 남성, 부르주아 엘리트, 서양이라는 절대권력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들은 이성과 절제력,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남성성을 이상적으로 여기도록 강조하였으며, 미의 표준으로서 질서와 조화라는 고전적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표준은 그들이 추구하던 합리주의라는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산업 사회의 산물인 남성의 슈트는 권위적이며, 강건한 남성성을 표현하며, 근대미의 표상이 됨으로써 절대적인 가치를 발휘하였다(이민선, 2003). 따라서 직장에서 남성적인 비즈니스 슈트로 가장한 여성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기대되었고, 파워 슈트는 지금까지 남성에 의해 수행되었던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는 여성들의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Fig. 2>는 지적이고 권위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아르마니의 광고사진으로, 그는 딱딱하게 패딩된 어깨와 넉넉한 품의 재킷에 미묘한 중성색 줄무늬의 울 소재를 심지를 대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복식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이 나타난다.

2.2.2. 관능성

여성의 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 여성적인 외모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패션에도 반영되었다. 즉, 여성성을 부정하는 남성적인 옷차림을 하는 대신에 여성 중심적 사고로써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치있는 것으로 정당화하면서 의상에서도 여성성의 장점을 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슈트는 패드로 과장한 어깨에 허리가 꼭 맞고 길이가 긴 역삼각형 실루엣의 재킷에 타이트한 짧은 스커트로 여성의 몸을 과장하고 강조하게 되었다(함연자, 2003).

<Fig. 3>은 세련되고 관능적인 여성 주지사 모습을 강조하는 도나 카란(Donna Karen)의 광고사진으로, 복식을 통해 권력과 지위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자 했던 당시 여성들의 욕망을 만족시켰다. 그녀는 바쁜 직업여성들을 위하여 남성적인 테일러드 재킷에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디 슈트와 그 위에 입는 랩 스커트와 넓은 팬츠의 조합을 제시하여 직장에서의 옷차림으로 적합하면서, 재킷의 교체만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차림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유연하고 신축적인 재질의 사용으로 엄격한 슈트에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제공하였다(함연자, 2003). 그림에서 어깨는 패드를 대어 넓고 딱딱하게 보이도록 과장하고, 허리는 꼭 맞게 조여 주어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하였다. 여기에 핀스트라이프(pin stripe)의 질은 네이비 블루(dark navy blue) 색상의 실크 소재에 금색 단추로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디자인에서는 여성의 몸을 강조하고 섹시함을 표출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여성성과 관능성이 나타난다.

2.2.3. 사치성

사치란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모든 소비를 말하는데, 개인의 불필요한 욕구, 즉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사치는 특히 어떤 지



Fig. 1. M. Thatcher



Fig. 2. Giorgio Arm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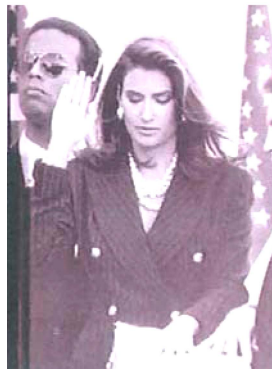


Fig. 3. Donna Karen



Fig. 4. Aquascutum

위나 부, 미에 대한 욕망을 위한 물질 추구라고 할 수 있다 (Sombart, 1997). 끊이지 않는 소비가 애국심으로 그려진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따라 여피들은 더욱 소비 지향적이 되면서, 성공한 여성들은 비싼 차와 디자이너 의복, 값비싼 보석을 통해 그들의 경제력을 과시하였다. 이들의 패션 아이콘은 럭셔리와 트렌드로, 디자인과 소재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최고급이어야 하며, 오리진널 하우스 디자이너가 제시하는 트렌드를 따라야만 했다. 당시 여피의 주 본거지인 뉴욕에서 유행한 디자이너 브랜드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샤넬, 아쿠아스큐텀 (Aquascutum), 켈빈 클라인, 도나 카란, 랄프 로렌 등이다. 이들은 한가롭게 쇼핑할 시간이 없는 여피족들을 위해 속옷에서 코트에 이르기까지 한 라벨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는 '토틸 패션을 제시해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전 세계를 제트기로 누비며 파티와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소위 제트 세트 족들을 위해 수면용 안대, 치약, 칫솔까지 디자인하였으며 어느 브랜드인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로고를 집어넣은 아이템들을 내놓기도 하였다. 모두 자신들의 부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부르주아 여피들을 겨냥한 것이다(한귀자, 2002).

이들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샤넬, 아쿠아스큐텀, 켈빈 클라인, 도나 카란, 랄프 로렌 등의 고급브랜드의 수트와 루이 비통 백과 여행가방, 모스키노의 큰 벨트와 단추, 샤넬의 주얼리와 핸드백을 착용하였다. 특히 고급브랜드의 수트들은 어깨를 강조한 실루엣에 고급 소재와 정교하고 화려한 수공예 장식, 고가의 브랜드 제품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로고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Fig. 4>는 부유하고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아쿠아스큐텀의 광고사진으로, 상류사회의 귀족적이고 호화로운 삶을 표현한다. 수트는 딱딱하게 각진 어깨와 큰 칼라의 재킷과 스커트로, 여기에 핀스트라이프의 짙은 네이비 블루(dark navy blue) 색상의 실크 소재를 사용하고, 화이트(white) 색상의 정교하게 제작된 칼라와 금색 단추로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수트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상징하고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사치성이 나타난다.

3.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파워 수트 스타일의 이미지와 조형적 특성

08/09 F/W, 09 S/S, 09/10 F/W, 10 S/S 컬렉션을 면밀히 살펴본 바, 파워 수트 스타일은 클래식(Classic), 로맨틱(Romantic), 아방가르드(Avant-garde), 에스닉(Ethnic), 매니시(mannish), 스포티(sporty), 사이버(cyber), 밀리터리(military), 마린(marine) 등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 중 클래식·로맨틱·아방가르드·에스닉 이미지는 08/09 F/W, 09 S/S, 09/10 F/W, 10 S/S 컬렉션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매니시·스포츠 이미지는 09/10 F/W 컬렉션, 사이버·밀리터리·마린 이미지는 10 S/S 컬렉션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워 수트 스타일을 매 시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클래

식, 로맨틱, 아방가르드, 에스닉 이미지로 분류하여 그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클래식 이미지(Classic image)

복식에 있어서 클래식은 유행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타일로 약간의 세부적인 변화는 있으나 그 스타일의 기본형은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한다(패션큰사전, 1999).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파워 수트 스타일에 있어서 클래식 이미지는 1980년대 파워 수트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라 정의한다.

따라서 파워 수트 스타일에 있어서 클래식 이미지는 넓고 각진 어깨를 강조한 싱글 혹은 더블 재킷과 무릎 길이의 스트레이트 스커트 혹은 테이퍼드 팬츠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중성색과 어두운 색상을 중심으로 스트라이프나 체크 무늬, 표면의 질감이 거친 소재를 상하 동일하게 사용하여 1980년대 파워 수트와 유사한 진지하고 보수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

<Fig. 5>는 정통적인 클래식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트들이다. 먼저,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는 09/10 F/W 컬렉션에서 스커트 수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수트는 쓰리 버튼의 싱글 재킷과 무릎 길이의 스트레이트 스커트로, 검정색의 울 소재가 사용되었다. 그는 어깨의 폭을 넓게 하고 패드를 대어 각이 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소매까지도 각이 지게 부풀려 어깨를 과장하였다. 또한 그는 재킷위에 벨트를 매치하여 허리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09 S/S 컬렉션에서 팬츠 수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수트는 싱글 재킷과 8부 정도 길이의 테이퍼드 팬츠로, 핀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검정색의 울 소재가 사용되었다. 그는 어깨에서 소매까지 패드를 대어 각진 어깨를 부각시키고, 재킷위에 굵은 벨트를 매치하여 허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바짓단을 접어 올려 신선하고 젊은 감각을 표출하는데, 사실 턴업스(turn-ups) 스타일은 남성적인 수트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출 디테일로, 여기에서는 길이를 짧게 하여 발목을 노출시키고 여성적인 구두와 매치하였다.

3.2. 로맨틱 이미지(Romantic image)

복식에 있어서 로맨틱은 레이스, 프릴, 리본 등으로 장식한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패션큰사전, 1999),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파워 수트 스타일에서 로맨틱 이미지는 1980년대 파워 수트의 형식에 로맨틱한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우아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라 정의한다.

따라서 파워 수트 스타일에 있어서 로맨틱 이미지는 넓고 각진 어깨를 강조한 싱글 재킷과 다양한 길이의 스커트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파스텔 색상과 원색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색상의 레이스, 실크, 울 소재를 사용하여 1980년대 파워 수트와는 다른 가볍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표현한다.

<Fig. 6>은 로맨틱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트들이다. 먼저, 크리자(Krizia)는 10 S/S 컬렉션에서 스커트 수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수트는 원 버튼의 싱글 재킷과 미니 스커트로 구성되어



09/10 F/W Micheal Kors 03 S/S M.Jacobs

Fig. 5. 클래식 이미지



10 S/S Krizia 09 S/S M. Jacobs

Fig. 6. 로맨틱 이미지

있다. 어깨는 폭이 넓고 각이 지며, 재킷 위의 가는 벨트는 허리를 강조하여 80년대 파워 슈트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재킷 안에 아무 것도 입히지 않은 모델은 가슴 부위를 노출시키고, 짧은 스커트에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아 허벅지와 다리를 노출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크림색의 부드러운 울과 꽃무늬가 있는 레이스 소재가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09 S/S 컬렉션에서 스커트 슈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슈트는 지퍼로 된 싱글 재킷과 블라우스, 햄라인이 비대칭인 스커트로, 화려한 색상의 울과 실크 소재가 사용되었다. 그는 패드를 대어 어깨를 부각시키고, 굵은 벨트로 허리를 강조하면서 붉은 색상의 광택나는 울 트위드와 금색의 지퍼로 된 재킷을 열어 두어 안에 착용한 체크 패턴의 실크 블라우스를 노출시키고, 짙은 네이비 블루의 실크 소재로 된 스커트는 주름과 프릴로 장식하였다. 여기에서는 로맨틱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디테일인 주름과 프릴 장식, 여성스러운 벨트와 모자 심지어는 핸드백과 같은 액세서리를 함께 매치하였다.

3.3. 아방가르드 이미지(Avant-garde image)

복식에 있어서 아방가르드는 전위적인 스타일로 때때로 선정적이거나 충격적인 것을 의미한다(패션큰사전, 1999).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파워 슈트 스타일에 있어서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1980년대 파워 슈트의 형식을 변형하거나 해체한 과격적인 이미지라 정의한다.

따라서 파워 슈트 스타일에 있어서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재킷의 어깨 부위는 두툼한 패드를 넓게 대거나 혹은 패드를 아예 대지 않아 축 처지게 하고, 재킷의 길이, 소매의 형태와 길

이, 부분적인 디테일을 변형시킨 싱글 혹은 더블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흰색, 회색,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과 어두운 색상의 무늬 없는 플레인 재질 혹은 특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1980년대 파워 슈트와는 전혀 다른 냉소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

<Fig. 7>은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슈트들이다. 먼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10 S/S 컬렉션에서 스커트 슈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슈트는 두 버튼의 싱글 재킷과 미니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다. 재킷은 어깨의 폭과 품이 넓고 굵은 벨트는 상체의 볼륨을 과장하고, 길이는 스커트를 덮을 정도로 길며, 소매는 형태와 길이가 변화되었으며, 칼라와 라펠 또한 심지 없이 봉제되었다. 스커트는 허리 위치가 낮고, 길이 또한 짧으며, 단 처리는 하지 않아 마치 미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푸른색기가 있는 회색의 후줄근하고 구김이 많은 면 소재가 사용되었고, 재킷 안에는 아무 것도 입지 않아 과거에는 은폐되었던 여성의 가슴 부위를 노출시키고,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아 허벅지와 다리를 노출시키는 등 1980년대 파워 슈트의 형태, 소재, 착장 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린 단순하지만 실험적인 디자인이다.

다음으로, 루이 뷔통(Louis Vuitton)은 09/10 F/W 컬렉션에서 스커트 슈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슈트는 포 버튼의 더블 재킷과 미니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다. 재킷은 어깨의 폭과 품이 넓고, 길이 또한 스커트를 덮을 정도로 길며 소매는 손등을 덮을 정도로 길고, 칼라와 라펠 또한 변형되었다. 스커트는 허리의 위치가 낮고, 길이 또한 짧다. 여기에 붉은 색과 푸른 색이 뒤섞인 다마스크(damask) 소재를 사용하고, 재킷 안에는 시스루(see-through) 소재의 블라우스를 매치하여 속속인 검정색 브



10 S/S Vivienne Westwood 03/10 F/W L.Vuitton

Fig. 7. 아방가르드 이미지



09 S/S Dolce & Gabbana 08/09 F/W M. Jacobs

Fig. 8. 에스닉 이미지

리를 노출시키고,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아 허벅지와 다리를 노출시켰다. 재킷과 스커트는 단순하지만 크기와 비율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린 디자인으로, 여기에 리본 장식이 있는 검정색 새틴 소재의 부츠와 붉은색 핸드백, 과장된 목걸이 심지어는 토끼를 연상시키는 검정색 머리 장식을 함께 매치하였다.

3.4. 에스닉 이미지(Ethnic image)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으로 문화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소수민족의 문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좀 더 균형 있고 폭넓게 보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다문화주의로 패션에서는 에스닉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복식에 있어서 에스닉은 민속복에서 영향을 받아 디자인된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패션큰사전, 1999),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파워 슈트 스타일에 있어서 에스닉 이미지는 1980년대 파워 슈트의 형식에 민속적인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이국적인 이미지라 정의한다.

따라서 파워 슈트 스타일에 있어서 에스닉 이미지는 어깨의 폭이 넓고 패드로 어깨선을 강조한 싱글 재킷과 무릎 길이의 다소 여유가 있는 스트레이트 스커트 혹은 폭이 넓은 팬츠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선명한 색상의 양식적 무늬가 있는 광택나는 소재를 사용하여 1980년대 파워 슈트와는 전혀 다른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한다. 이러한 분위기의 에스닉 이미지는 양식적 무늬의 패턴이 중심이 아닌 복식의 형태나 화려한 색상, 민속풍의 액세서리를 통해 표현할 수도 있다.

<Fig. 8>은 에스닉 이미지를 나타내는 슈트들이다. 먼저,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는 09 S/S 컬렉션에서 스커트 슈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슈트는 칼라가 없는 포 버튼의 싱글 재킷과 품이 넉넉한 무릎 길이의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다.

재킷은 소매를 각이 지게 부풀려 어깨를 과장하고, 칼라를 없애고, 재킷과 소매는 짧게 변형시켰다. 여기에 양식적 무늬의 골드와 오렌지 색상의 화려한 실크 소재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마크 제이콥스는 08/09 F/W 컬렉션에서 팬츠 슈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슈트는 포 버튼의 싱글 재킷과 와이드 팬츠로 구성되어 있다. 재킷은 어깨의 폭과 품에 여유가 있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엉덩이를 덮는 빅 실루엣인데, 소매는 손등을 덮을 정도로 길고, 칼라와 라펠은 좁게 변형되었다. 팬츠는 주름이 잡혀 있으며 폭이 넓고, 길이 또한 구두를 덮을 정도로 길다. 여기에 금색사가 섞여있는 화려한 실크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재킷의 칼라를 마치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처럼 보이도록 세워 연출하여 복식의 형태와 색상, 소재에서 동양적인 신비감을 주었다.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파워 슈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08/09 F/W, 09 S/S, 09/10 F/W, 10 S/S 컬렉션에서 나타난 파워 슈트 스타일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파워 슈트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피 계층의 대두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등장하게 된 스커트 슈트로, 여성이 남성과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드러내고, 여성의 몸을 강조하여 섹시함을 표출하고, 부를 과시하고자 착용한 고가의 정형화된 패션이다. 이러한 파워 슈트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샤넬, 아쿠아스큐팀, 캘빈 클라인, 도나 카란, 랄프 로렌 등에 의해 디자인되어, 재킷의 넓

고 딱딱하게 패딩된 어깨와 넉넉한 품, 미묘한 중성색과 어두운 색상을 중심으로 한 스트라이프나 민무늬의 울 소재 등에서 권위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어깨는 패드를 대어 넓고 딱딱하게 보이도록 과장하고, 허리는 꼭 맞게 조여 주어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한 재킷과 짧은 몸에 딱붙는 스커트 등에서 관능성이 나타났다. 또한 고급 소재로 정교하게 제작된 슈트와 화려한 수공예 장식, 고가의 브랜드 제품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로고 등에서 사치성이 나타났다.

둘째, 최근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파워슈트 스타일은 줄리아 맥도널드, 구찌, 비블로스, 돌체 앤 가바나, 지안 프랑코 페레, 지오르지오 아르마니, 크리시아, 지방시, 발망, 샤넬, 루이 뷔통, 알렉산더 맥퀸, 알렉산더 왕, 도나 카란, 마크 제이콥스, 비비안 웨스트우드, 마이클 코어스, 랄프 로렌 등에 의해 디자인되어 클래식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 아방가르드 이미지, 에스닉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클래식 이미지는 넓고 각진 어깨를 강조한 싱글 혹은 더블 재킷, 다리와 허벅지를 노출시킨 미니 스커트, 발목을 노출시킨 8부 길이의 테이퍼드 팬츠, 무채색과 어두운 색상을 중심으로 한 스트라이프나 체크 무늬, 표면의 질감이 거친 소재,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재킷위에 매치한 벨트 등을 통해 나타났다. 로맨틱 이미지는 햄라인이 비대칭인 스커트, 파스텔 색상과 원색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색상, 레이스 · 실크 · 울 소재, 개더와 플라우스 장식, 여성스러운 벨트와 모자, 핸드백과 같은 액세서리 등을 통해 나타났다.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재킷의 형태와 길이, 어깨와 소매 같은 부분적인 디테일을 변형시킨 싱글 혹은 더블 재킷, 단 처리를 하지 않아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스커트, 무채색과 어두운 색상의 무늬 없는 플레인 재질 혹은 특수 소재, 유머러스하고 과장된 장식, 가슴과 속옷을 노출시킨 착장법 등을 통해 나타났다. 에스닉 이미지는 어깨의 폭과 품에 여유가 있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엉덩이를 덮는 빅 실루엣의 재킷과 와이드 팬츠, 양식적 무늬, 골드와 오렌지 등의 화려한 색상, 금색사가 섞인 실크 소재, 민속풍의 액세서리 등을 통해 나타났다.

셋째 최근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파워 슈트 스타일은 1980년대 파워 슈트에서 나타난 권위성, 관능성, 사치성을 드러내는 정형화된 이미지로부터 권위성과 유희성, 관능과 양성성, 사치성과 다문화성 등을 표현하는 클래식, 로맨틱, 아방가르드, 에스닉 이미지와 같은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이 1980년대에는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개인의 취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연. (2002). *20세기 이상미에 따른 여성 속옷 구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혜. (2009, 10). 더 뉴 솔더. *엘르코리아*, pp. 242-244.

김현진. (2009, 10. 29). ‘뽕’어깨와 카리스마. *동아닷컴*. 자료검색일. 2009, 10. 30, 자료출처 <http://news.donga.com>

맹창현. (2009, 9. 2). 울 가을 잇패션. 파워솔더 VS 오프솔더. *한국재경신문*. 자료검색일. 2009, 9. 26, 자료출처 <http://news.jknews.co.kr>

백소영. (2009, 9. 17). 80년대 북고풍 패션 가을거리를 점령하다. *세계일보*. 자료검색일. 2009, 9. 26, 자료출처 <http://www.segye.com>

이민선. (2003). 권력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11(2), 183.

이은영. (2003). *복식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p. 86.

최호정, 하지수. (2005). 우먼 파워로 나타나는 최근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5(2), 133.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하주희. (2009, 10). 파워 솔더즈. *하퍼스 바자*, pp. 350-357.

한귀자. (2002).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보보스 현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함연자.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슈트의 미적 특성. *복식*, 53(6), 109-110.

Callan, G. O. (1998). *Dictionary of fashion and designers*. New York: Thames and Hudson Inc., p. 191.

Crane, Diana. (2004).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서미석 역). 서울: 한길사, p. 48.

Molloy, J. T. (1980). *Women: Dress for Success*. N.Y.: Peter H. Wyden.

Mulvey, K., & Richards, M. (1998). *Decades of Beauty: the Changing Image of Women 1890s~1990s*. N.Y.: Checkmark Books, p. 173.

Sombart, Werner. (1997). *사치와 자본주의*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pp. 109-114.

“2008/2009 F/W, 2009 S/S, 2009/2010 F/W, 2010 S/S”, *Women's Key Looks*, 자료검색일 2009, 09. 26 ~ 2010, 03. 30, 자료출처 <http://www.ifp.co.kr>

(2011년 5월 6일 접수/ 2011년 7월 8일 1차 수정/
2011년 8월 11일 2차 수정/ 2011년 8월 11일 게재확정)